

東歐圈 국가 工業所有權 인정 모스크바 「特許情報研修」參與도 檢討

特許廳은 우리나라와 동구권 국가들의 교역방식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 이들 나라중 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에 工業所有權出願과 등록을 인정해주시기로 했다.

特許廳은 11일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의 동맹국으로서 同協약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공식국교가 없는 국가라도 파리동맹국인한 당해국 국민의 韓國내 工業所有權 出願과 등록을 당연히 인정해주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工業所有權보호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동구권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特許廳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동구권과의 경제교류확대측면에서 이들지역에서 개최되는 知的所有權세미나 연수회의 참가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현재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와 蘇聯이 공동주관하여 오는 6월 10일~7월 5일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特許情報에 관한 研修과정에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職務發明制 導入 적극 유도 技術開發活性化겨냥 制度的裝置 마련

特許廳은 올해부터 기업의 技術開發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職務發明制度를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8일 特許廳은 특히 機械·電子·遺傳工學등 우리나라가 아

직도 낮은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는 尖端分野의 技術開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은 물론 中小업체들도 적극 職務發有制度를 도입,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大韓辨理士會 第24代 會長에 徐大錫 辨理士 당선

大韓辨理士會는 지난 2월 20일 第27回 定期總會에서 第24代 會長에 徐大錫 辨理士를 선출했다.

또 副會長에는 鄭浩澤·金允培·孫京漢 辨理士를, 理事에는 朴壯源·河文洙·金善用·康一宇·具滋德·金兌圭·金性澤 辨理士를, 監事에는 崔德彬·朴熙圭 辨理士를 각각 선출했다.

新任 徐會長은 1921年生으로 ▲만주봉천공대 건축과 졸업 ▲特許局 審査委員 ▲特許局 士建局長 ▲74年 辨理士 開業 ▲大韓辨理士會 特許制度改正

審議위원장 ▲AIPPI韓國部會 會長등을 역임했으며, ▲特許研究 ▲工業所有權法해설 ▲新製品開發과 特許管理등의 著書가 있다. (☎)

◎ 알림 ◎

본지 2월호 13면 「7. 발명지원사업」중 6) 학생발명반 활동지원과 7) 발명지도반운영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주>